

# UN지구협약 정상회의 결과

## ISO,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발전 협력약속



박혜란  
소재나노표준팀 전문위원  
02-509-7274 ~ 7  
hrkwak@mocie.go.kr

### □ UN지구협약 정상회의 개최

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인 UN 글로벌 콤팩트(UN Global Compact) 정상회의가 07년 7월 5일부터 이틀 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(팔레테 나시옹)에서 개최되었다.

약 1,000여명의 최고 경영 책임자와 각국 장관, 시민단체 및 노동기구 대표로 구성된 청중 앞에서 UN 사무총장은 16개국의 이해 당사자와, 1,000여 기업에 인권, 노동, 환경 및 반부패 관련 지구협약 10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.

UN 사무총장(반기문)은 힘(권력)을 책임성과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, 시장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좋은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.

### □ ISO - UNGCO 간 공동협력

ISO 사무총장(Alan Bryden)은 정상회의에서 ISO는 UN 지구협약과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으며, 현재 개발 중인 ISO 26000(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)은 사·공적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.

ISO는 2006년에 지구협약 10대 원칙에 부응하는 ISO 26000의 개발, 촉진, 지원과 관련하여 UN 지구협약 사무소(UNGCO, UN Global Compact Office)와 긴밀한 공조를 위해 해양각장(MoU)을 체결한 바 있다.

- 1) 유엔 글로벌 콤팩트(UN지구협약 정상회의, UNGC)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을 비즈니스와 접목시키도록 하기 위해 2000년 코피 아난 전 UN총장이 제안해 만들어진 국제협약으로 현재 3천여 기업을 비롯해 116개국의 4천여개 각종 조직들이 가입했으며, 인권과 노동, 환경,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개 원칙을 기업 경영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.
- 2) 현재 ISO 26000은 규격개발 절차 중, WD(Working Draft) 단계이며, ISO 기술관리부(TMB)에서 담당하고 있다.



ISO 사무총장인 N지구협약사무소와 ISO 간 공동 협력은 ISO 표준이 공공정책, 사회 각주요 및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시장적합성과 우수 사례를 개발·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 또한, 기제정된 국제노동표준 및 지침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와 약트너십도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

□ 사회적 책임(SR)

사회적책임은 용어, 원칙, 지침서 관련 개발이 니셔티브와의 일치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ISO의 아젠다에 포함되어 있다. ISO 26000의 주요 이슈는 '07년 초 시드니에서 개최된 ISO "사회적책임" 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4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:

- 환경,
- 인권 및 노동,

- 조직관리 및 공정 운영 사례,
- 소비자 이슈 및 공동체 개입/사회 개발

二 지속가능발전(Sustainability)

지속가능발전 관련 ISO 표준은 약 500여 개가 있으며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:

- 무역거래 촉진으로 인한 경제 성장, 우수 비즈니스 사례와 신기술의 보급 및 상호운용성:
- 우수 환경 관리 및 라벨링 촉진율도 포함으로써 환경 무결성 추구
  -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검증 지원, 공기, 물, 토양의 질, 에너지 효율성, 신재생에너지 자원 관련 표준 제공;
- 사회적 형평성 추구
  - 소비자 보호, 정보, 작업장에서의 안전성, 건강 기술 및 서비스, 사회적 책임 관련 표준 제공

출처 ISO 포커스  
기술 표준 2007.8